韓國醫學史에서의 醫案硏究의 必要性과 意義

金南一

慶熙大 韓醫大 醫史學敎室

Abstract

The Need and Meaning of Studying Medical Records in the Korean Medical History.

Kim Nam Il

Dept.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Medical Records are the clinical chronicles of Korean Medicine. It not only has value as historical documentation, but also has value in clinical use. If studies of medical records that contain specific methods for tackling diseases are accompanied, it will be easier to clearly see the internal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Medical History. This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by reporting the thoughts on the necessity and meaning of studying Medical Records.

1. 序論

醫案은 醫家들이 질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글로 적은 것이다. 이것은 임상에서의 辨證施治 과정을 기록한 자료로서 이론에서부터 임상실제에 이르기까지의 理, 法, 方, 藥을 구체적으로 다룬 醫家들의 經驗集이라 할 수 있다. 醫案들은 단순한 진료 기록의 차

원을 넘어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 논문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따라서 醫案을 통하여 醫家들의 임상 경험뿐만 아니라 그의 학술적 성향을 엿볼 수 있으므로 후학들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학술적 精髓를 전수 받을 수 있게 하여 임상활용에 좋은 교재가 된다. 특히 醫案에 기록된 독특한 임상적 견해와 경험들은 이론적 측면에 치우친 醫書들로부터는 취득할 수 없는 생동감 있는 것들로 한의학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왕의 韓國醫學史의 연구들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새로운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기존의 한국의학사에 관한 총서들은 한국의학사의 정립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醫書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醫學史를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차원에서 논의하여 제대로 된 한국의학사의 내부논리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최근 의서 텍스트 자체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진행되면서 의학사 연구가 과거의 부족을 점차 메워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질병에 대한 구체적 대응양식을 담고 있는 醫案의 기록에 대한 연구가 더불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학사의 내재적 발전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함량이 높은 한국의학사 연구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는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학사에서의 의안연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한번 생각한 바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 醫案硏究의 必要性

醫案은 韓醫學의 臨證實錄이다. 역사문헌적 가치뿐만 아니라 임상실용적 가치가 있다. 韓醫學을 처음 배우는 이에게 매우 필요할 뿐만 아니라, 韓醫師의 임상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에도 더 큰 도움이 된다.

첫째, 醫案은 韓醫師들의 진료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다. 醫案은 몸소 환자를 진료하면서 적은 다량의 1차적 자료를 보존하고 있어서 예전 사람들의 성공한 경험과 실패한 교훈이 배어 있는 자료로서 임상에서의 치료와 기초이론에서의 수준의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名醫類案』과 『續名醫類案』 두 책은 청대 이전의 800餘人들의 醫案을 모아 놓아 우리들에게 계속 전해지게 해주어 각 유명 醫家들의 학술사상과 변증론치의 특징을 연구함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위에서 몇가지로 설명한 것처럼 醫案은 醫書에 비하여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즉, 惲軼樵가 『淸代名醫大全·序』에서 “우리나라에 매우 많은 醫書들이 있지만 그 진실된 가치는 議論에 있는 것이 아니고 方藥에 있다. 議論은 空論이 많지만, 方藥은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醫案을 인쇄하는 것은 현재 가장 도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임상 실무자가 치료 과정 중에 견실한 기초 이론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상 경험을 쌓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도 있고, 또한 선배들의 성공 경험을 흡수하여야 비로소 환자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醫案硏究는 곧 간접적으로 많은 역대 名義들에게서그 임상 경험을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임상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醫案이 醫師의 수준을 심사하는 실증 근거가 될 수 있다. 醫案은 臨證實錄으로 醫案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의 수준의 높고 낮음을 판정할 수 있다. 일찍이 『周禮·天官』에 "그 해가 끝나면 醫事를 고려하여 복록을 제정하는데, 열가지 경우 중에 열가지 모두 치료되면 上等이고, 열에서 하나를 잘못한 것이 다음이고, 열에서 둘을 잘못한 것이 그 다음이고, 열에서 셋을 잘못한 것이 그 다음이고, 열에서 넷을 잘못한 것이 하급이다."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오래 전부터 醫案이 의사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로 여겨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는 醫案이 한의학 교육 강의 내용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일찍이 宋代 太醫局에서 바로 醫案의 작성과 분석이 의학생 성적을 평가하는 근거의 하나가 되었다. 근대 施今墨이 창립한 華北國醫學院, 張山雷가 교직을 맡은 浙江黃墻中醫學校 등에 모두 醫案과 관련된 課程를 개설하고 있다. 이 名醫들은 모두 자신의 임상 실천으로부터 醫案의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현재의 중국의 중의약대학에도 역시 "醫案"을 교육, 학습의 계획에 넣어 한 개의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넷째는 醫案이 史學硏究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醫學史의 각도로부터 醫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질병의 발전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韓醫學 발전의 기본 법칙을 밝혀낼 수 있다. 이 밖에 歷史學에서의 의심스러운 것들이 醫案의 기록을 자세하게 분석한 후에 비밀을 벗길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를 종합하면 醫案硏究는 한의학 이론 수준의 향상, 임상 실천 경험의 축적,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는 능력 증강에 모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의료, 교육, 연구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과학 연구에 대해서도 모두 상당한 실용 가치가 있다.

3. 醫史學에서의 醫案硏究의 意義

한의학의 역사 속에서 醫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임상, 교육, 연구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史料의 차원을 넘어 그 이상의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醫案은 대략 『內經』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醫案이 출현하게 되어 한의학의 이론이 임상실제에서 운용될 수 있게 해주어 醫師들의 진찰과 치료의 수준은 높아졌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었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대략 秦漢時代부터 시작되어 宋金元時代에 발전하여 明淸時代에 성숙하였다. 대대로 이어져 오면서 발전하여 세세토록 끊임없이 축적되어 점차 완전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醫史學을 연구함에 醫案에 대하여 연구는 질병의 發展史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韓醫學 발전의 기본 법칙을 밝혀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歷史學 속에서 의심스러운 것들이 醫案의 기록을 자세하게 분석한 후에 비밀을 벗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의의는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醫案은 醫家들의 개인적 기록이므로 醫學人物史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특정 醫書에 나오는 처방과 의론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해당 醫家의 의학사상을 이해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음을 안다. 만일 해당 醫家의 醫案을 읽고 분석한다면 그 醫家의 학술사상과 치료경향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같은 시대의 醫案을 읽고 분석한다면 해당 시대의 질병발생의 경향과 치료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張從正, 朱丹溪, 李杲 등의 醫案은 당시에 빈발하였던 질병들을 치료한 기록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해당 시대의 질병의 발생경향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한다.

셋째, 같은 學派의 醫案을 읽고 분석한다면 해당 학파의 질병인식의 패턴과 질병치료상의 공헌을 제대로 인식하여 學術流派의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醫家들의 醫案을 연구하여 해당 지역에 발생했던 질환의 발생 추이와 風土病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현재의 해당지역 질병치료에까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역사는 반복한다는 상식으로 볼 때 현재에 발생하는 질환들을 과거에 기록된 의안기록으로부터 유추하여 그 치료법의 대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와 같이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을 고집하는 연구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醫史學 연구 뿐 아니라 임상 실제에도 치료의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醫史學이라는 학문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韓醫科大學에서 醫史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醫案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다른 전공분야의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현대의 연구집단에서 나오는 진료기록을 醫案의 형태로 정리하여 현대의 醫案으로 널리 소개하여 치료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여 한의학의 학문적 공신력을 높이고, 정리된 醫案을 통해 현대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에 대한 연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기존 韓國醫學史 연구의 한계와 醫案硏究의 必要性

韓國醫學史는 일본인 의사 三木榮, 한국인 학자 金斗鍾 등에 의해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 三木榮은 『朝鮮醫學史及疾病史』(1955년)를 지어 한국의학사를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고, 金斗鍾도 『韓國醫學史』(1966년)라는 책을 통해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한의서적을 중심으로 의학사를 기록하게 된 한계를 그대로 노정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의학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내부적 논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것은 저자 자신의 한의학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역사학자 손홍렬의 경우,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제도에 중점을 두어 사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첨가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저작인 『韓國中世의 醫療制度 硏究』(1988년)는 의학 내적 논리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없고 의료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학사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이 있을 뿐이다. 홍순원의 『조선보건사』(1981년)은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해방후 북한의 보건의료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정민성의 『우리의약의 역사』(1990년)은 이 책의 체계의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1995년에 나온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국한의학사 재정립』은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의학사를 정립하고 나온 역작이다. 그러나 시대별로 집필자들이 달라서 그 내용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

위와 같은 한국의학사 통사류 서적들은 공통적으로 한의학 내적 논리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기에 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의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과 의안에 대한 분석연구가 그 대안으로 떠오른다 할 것이다.

한국의학사를 장식하고 있는 의서들 속에서는 의안의 기록을 찾아서 연구하는 것은 많은 의의가 있지만 몇가지 난제가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한다면 한국의학사는 새로 쓰여질 수 있다고 본다.

첫째, 醫書들 속에 나오는 醫案들이 숫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있다고 하더라도 몇 종류의 책들에 국한되어 있어서 앞으로 분석대상 의서의 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앞으로 의서 이외의 기록들의 분석, 예를 들어, 문집, 실록 등의 기록 분석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醫書 속에 나오는 醫案들이 중국의 의안들을 그대로 배낀 것이라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東醫寶鑑』이 기존의 종국의서를 그대로 베껴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하나의 의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것이 활용되는 과정을 단순히 베껴서 읽히는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의서를 단순히 임상을 모르는 학자들의 짜깁기 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다. 똑같은 의안이라도 그 의안이 적용되는 예와 내용 안의 치료처방의 용량 등에 차이가 있고 이것이 의학사 속에 내재화되어 발전된 형태로 활용되는 점이 있으므로 기원논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셋째, 醫書를 기록한 醫家들 이외에 민간에서 활동하였던 수많은 의가들의 의안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한의학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에도 매우 필요한

---

1) 이상은 申東源의 「한국 보건의료사 연구 동향」. 『韓國保健史學會誌』, 제2권 제1호, 1992를 참조함.

것이라고 본다. 실록이나 유학자들의 문집 속에는 환자를 치료한 경험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의안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록들로서 해당 의가들의 학술사상과 치료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가 된다. 이것들에 대한 연구는 의학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넷째, 醫案에 대한 硏究가 과거에 대한 고리타분한 환상으로 과학적 연구와 거리가 멀다는 주장에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의학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왜곡과정을 볼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서양의학이 들어온 이후 백여년간 한의학에 몸담았던 선배제현들은 서양의학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해 한의학 연구의 방향에 대해 지나치게 과학성을 강조하였다. 과학성에 대한 강조는 한의학 자체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풍토와 연계되어 본질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몇몇 학문적 커뮤니티는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접근방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그 예로서 형상의학회, 병인학회, 일침학회 등을 꼽는다. 이들은 실재로 학문적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현대적 의미의 醫案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들 의안들은 임상실제에서 활용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어 들이고 있다.

5. 앞으로의 과제

醫案을 연구하는 목적은 선인들의 식견을 한의학적 임상에 참고하고 검증하여 후세의 醫者들이 활용하고 전통의학의 맥을 승계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최근 난치성 질환이나 성인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아직 미미한 실정에서 古方이나 醫案의 경험방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의외의 결과를 거둘 수 있어 임상치료의 폭을 넓혀주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歷代 名醫들이 先人들의 경험을 최대한 도입하여 임상에 활용하였듯이 향후 醫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약물과 처방을 현재 임상에 맞게 선별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醫案에 대한 연구가 원활하기 위해 醫案의 分類 및 比較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의안전문 서적들의 경우에는 醫家, 科目, 病證, 治法, 方劑, 學派, 時代,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완성되었다. 우리는 醫案들을 취합하여 특정 기준을 표방하면서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醫案硏究에서는 통계적 분석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한의학 관련 문헌자료는 수천년 동안 내려오면서 분량에 있어 방대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계적 技法에 의해 한의학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실효를 거둘 것이다. 醫案이 비록 歷代 많은 醫家에 의해 편찬되어 학파의 차이, 편제의 차이, 시대적 차이가 존재하고 심지어 부실한 내용이나 거짓이 뒤섞여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理法方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일치한 견해에 접근해 있다.

이를 토대로 수학적 분석방법이나 확률적 계산으로 한의학 이론의 展開에 비합리적인 부분을 쉽게 걸러내고 부실한 내용을 선별하며 신뢰도가 높고 정확한 자료의 수집에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Data Base 구축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날로 늘어나는 정보화 시대에 한의학 자료의 정비작업도 시대에 발맞추어 DB 구축과 네트워크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전통성을 잃지 않으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이론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전통 경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비하는데 대비해야 한다.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화 작업이 보편화되면서 한의학의 病證分類體系, 진단체계, 처방 시스템, 진찰기록부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산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점에서 歷代 유명한 醫家들의 醫案에 대해 DB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자료의 영구적 보존과 더불어 통계분석에 따른 名醫들의 치료원칙 표준화를 모색하고 전산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歷代 醫案을 집대성하는 연구는 고대 문헌에서 한의학 임상경험을 정리하여 거대한 정보를 발굴해내는 과정이다. 한의학임상의 발전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정보화 시대에 한의학의 소중한 경험을 가장 신속하고 폭넓게 정확성을 기하면서 효율적으로 보존, 처리,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통계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규격화 작업에 착수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산화 작업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醫案 연구의 나아갈 방향이며, 더 큰 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최근 몇 년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한 한의학고전문헌의 DB화 작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 한의학의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작업에 과거의 의안에 대한 분석과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의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덧붙여진다면 아마 한국의 한의학은 새로운 차원의 발전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